研究論文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홍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연구소, 고전소설 전공
hhyunsung@daum.net

I. 머리말
II. 이본 비교
III. 〈남계연담〉의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소설의 국적 문제는 명확한 소설사 구성을 위해 선결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원본이나 작가를 밝히면 국적 논란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시 현재진행형인 자료 발굴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만은 없다. 국적 논란이 있는 소설의 경우, 원본 미상을 이유로 들어 논의에서 소외시키기보다 향유했다는 사실을 전제 삼아 작품 특징을 조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에 기초해 우리 소설사의 특징적 국면을 구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究明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 방법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껏 원본 미상의 중국소설로 여겼던 〈남계연담〉을 살피고자 한다.

〈남계연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영성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해제 수준과 원본을 알 수 없는 중국소설이라는 단편적 언급에 그쳤다.[1] 다만 선행 연구 가운데 양승민은 『承政院日記』와 『朝鮮王朝實錄』 소재 관련 기사를 통해 〈남계연담〉의 국적을 중국으로 비정했다.[2] 양승민의 연구는 심증이 아닌 문헌 기록을 토대로 국적을 비정해 다른 연구와 변별되었다. 하지만 단편적 문헌 기록을 신뢰해 내용을 면밀히 따져 국적 비정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양승민이 밝혔듯, 英祖는 1769년(英祖 45)과 1772년(英祖 48) 중국행 사신에게 〈탁록연의〉·〈남계연담〉을 사오라 하명한다.[3] 중국행 사신에게 하명한 사실을 근거로 두 소설의 국적을 중국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은 英祖의 기억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英祖의 기억에 반하는 기록이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 간과했다면 두 소설의 국적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1) 정병설, 「24. 남계연담」, 『藏書閣古小說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67쪽;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한국편-』(아세아문화사, 2007), 28쪽;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28쪽; 전인초, 「『劉基行狀』과 『南溪演談』·『南溪聯譚』」, 『東方學志』 145집(2009), 321-340쪽.

2)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古典文學硏究』 26집(2006), 259-289쪽; 『고전소설 문헌학의 실제와 전망』(아세아문화사, 2008), 429-458쪽 재수록.

3) 『承政院日記』 ○1769년(英祖 45) 10월 2일 원본1297책/탈초72책. 仍敎命膺曰 **涿鹿衍義 南溪衍談** 卿抵燕後 求問得來 可也 命膺曰 當依聖敎 求來矣. ○1772년(英祖 48) 11월 1일 원본1332책/탈초74책. 上曰 今番使行回來時 瀋陽朝鮮館畫來 **涿鹿衍義 南溪行譚** 買來 可也 三使臣及譯官先退 禮判入侍事. 行譚은 衍譚의 오식. 원문은 http://sjw.history.go.kr 참조. 강조 필자. 이하 동일.

英祖가 특별히 부탁했지만 사신은 중국에서 〈탁록연의〉와 〈남계연담〉을 찾지 못한다. 이에 대해 頤齋 黃胤錫(1729-1791)은 『頤齋亂藁』에서 〈탁록연의〉는 東人이 贋製한 소설이라 사신이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4] 현재 〈탁록연의〉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東人所贋製'란 표현을 참고하면, 〈탁록연의〉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지만 중국소설로 여겨질 형식과 내용을 취한 소설로 짐작된다. 英祖는 확실한 정보 없이 개인적 인상을 토대로 소설의 국적을 추정한 것이다.

물론 『頤齋亂藁』의 기록은 〈탁록연의〉에 국한된다. 하지만 〈탁록연의〉는 英祖가 〈남계연담〉과 함께 중국행 사신에게 사오라 한 소설이다. 『頤齋亂藁』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英祖가 중국행 사신에게 하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계연담〉의 국적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당시 궁중에서 읽힌 중국소설의 제명을 수록한 『中國小說繪模本』에서 '남계연담'이나 '남계연의'를 찾을 수 없는 점 역시 〈남계연담〉을 중국소설이라 확언하기 어렵게 한다. 관련 기록에 논란이 있다면 작품의 특징을 조명하는 가운데 국적을 논의하는 연구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5]

이 글은 내용 분석을 통해 〈남계연담〉의 국적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과정에서 찾아낸 〈남계연담〉의 특징이 우리 소설사에 맥이 닿았다면 이를 적극 究明하겠다.

II. 이본 비교

현전 〈남계연담〉 이본은 4종이다. 모두 한글 필사본으로 이 가운데 3종은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6] 3종의 이본은 김광순본[7], 장서각본[8],

---

4) 黃胤錫, 「二十九日甲戌」, 『頤齋亂藁』 卷15. 又昨年辭陛赴燕也 上特敎購涿鹿演義一部東來 故徐台承命購于燕 萬方未得 及歸廣詢 始知此乃東人所贋製 而非漢人所製 今俗婦女閨閣只有諺傳者而已.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頤齋亂藁』 3(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07쪽.

5) 〈태원지〉는 이제까지 중국소설로 여겨졌으나, 근래 임치균이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 소설임을 밝혔다. 임치균, 「〈태원지〉 연구」, 『古典文學硏究』 35집(2010), 355-384쪽.

6) 고서적을 매매하는 승문각(www.seungmunkak.co.kr) 판매 목록에 "남계연담 원지삼宮體本1冊"이 있다. "원지삼"은 권지삼을 잘못 안 듯하다.

7) 김광순 편,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박이정, 1998), 341-528쪽. 이하 『南溪聯譚』으로 표기하고 쪽수는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

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귀 K4-6788. 마이크로필름 번호: MF35-20.

서울대본[9]이다. 이들 이본은 표제의 "南溪"는 같지만 연담은 演談(장서각본), 聯譚(김광순본), 讌談(서울대본)으로 달리 쓴다.

본문에서 '남계'를 언급하지 않아 표제의 '南溪'가 지닌 의미는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내용을 참고하면 등장인물과 유관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남계연담〉 권3까지 중심인물은 劉基로 볼 수 있다. 그의 고향인 浙江 靑田縣과 이웃한 현에 南溪村과 楠溪江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만약 '남계'가 劉基 고향 인근에 있는 '南溪'나 '楠溪'라면, 劉基의 후손이나 '남계'를 호로 쓰는 인물을 가탁해 작가로 내세우며 쓴 제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본 가운데 김광순본은 편재상 상·하권 완질이나 내용에 결락이 있다. 胡惟庸의 역모를 진압하는 대목 전에서 하권을 끝맺기 때문이다. 장서각본 권3 해당 이야기를 누락한 것으로 김광순본 필사자는 하권 이후 이야기를 알았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필사하지 않았다.[10] 장서각본은 3권 3책으로 본래 낙선재 소장본이다. 현재 권1은 일실돼 권2와 권3만 전하고 있다. 그간 연구는 김광순본과 장서각본을 잇대 전체 서사를 파악했다.

서울대본(『南溪讌談』)은 3권 3책 완질로 이 글에서 처음 다루는 이본이다. 故 이희승 교수 기증문고로 소장처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이다. 책은 세로 35.2cm 가로 24cm로 큰 편이며, 능화문 황지에 홍사로 五針眼訂을 했고 서근에 '南溪讌談'이라 썼다. 線裝 아랫단에 '共三'이라 써 완질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반엽 무어미 무괘의 고급스런 한지에 매면 11행 남짓 유려한 궁체로 썼다.

서울대본은 장정이 고급스러우며 필체 역시 우수하다. 또 紙質이 색과 질감 면에서 여항에서 쓰인 것과 달리 매우 뛰어나다. 유전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원소장처를 추정할 수 있다. 사진1은 서울대본 기증자 일석이 권3 끝면에 남긴 자필 메모다.

---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 소장기호: 일석 819.5 N152yp. v.1-3.

10) "ᄎᆞ청ᄒᆞ회분석이나 차석ᄒᆞ도다 호유용의 역모의 잡혀 승복하ᄂᆞᆫ 거슬 보더면 졔일 샹쾌ᄒᆞᆫᄃᆡ 그런 ᄌᆞ미 잇난 마ᄃᆡ 쓴쳐지니 가탄이라 ᄌᆡ조와 인물을 ᄉᆡ긔ᄒᆞ여 남을 ᄇᆡᆨ계로 모ᄒᆡᄒᆞ다가 제가 삼족을 멸망ᄒᆞ니 보응이 명〃치 아니랴"-『南溪聯譚』, 523-524쪽. 또 필사 후기가 있어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신츅 칠 월 슌 팔 일 남창ᄒᆞ외"-『南溪聯譚』 상권, 444쪽. "신츅 지 월 염 팔일 종서하나"-『南溪聯譚』 하권, 524쪽. 辛丑은 1841년 혹은 1901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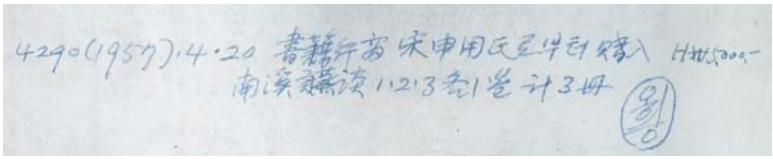


사진1－일석의 자필 메모

메모에 따르면, 일석은『南溪譙談』3권 3책을 1957년 4월 20일 書籍商 송신용에게 구입한다. 1957년도면 원이 아닌 환을 쓸 때이므로 치른 가격은 500만 환이다. 당시 쌀 한 되가 300환 정도임을 감안하면[11]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송신용이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내역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전 소장자를 알려주는 기록은 있다. 아래는 Skillend가 남긴 기록이다.

1947 exhibition, 159: 南溪譙談 Namgye Yŏndam(in the catalogue 南燕譙談 Namyŏn Yŏndam), manuscript, 3 vols (Yi haech'ŏng).[12]

표제와 권책이 서울대본과 같다. 일석이 송신용에게 구입한『南溪譙談』을 소장했던 사람은 이해청인 듯하다. 이해청은 대한제국의 황족으로 궁중에 드나들며 낙선재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를 가람 이병기 교수에게 알린 인물이다. 이해청이란 인물과 낙선재 소설의 관계 그리고 서울대본의 고급스런 장정과 글씨 등을 고려하면, 이해청으로부터 송신용과 일석을 거쳐 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南溪譙談』의 원소장처는 궁중이었을 것이다. 또 낙선재본 소설의 경우[13] 두 질씩 소장한 경우가 있다. 이를 참고하면 서울대본은 장서각본과 함께 낙선재 소장본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세 이본을 대조하면 권책이 겹치는 곳의 서사 전개는 같다. 다만

---

11) 54년간 가계부를 쓴 조영춘 씨에 따르면, 1957년에 쌀 1되에 300환, 강아지 한 마리에 720환, 소주 1병(1.8*l*)에 230환이었다고 한다. 강석봉,「54년간 가계부 쓴 진도 조영춘 씨」,《스포츠 경향신문》, 2011년 4월 24일자 기사 참조.

12) W. E. Skillend,『古代小說』(문연각, 1985), 69쪽.

13) 천혜봉,『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57-363쪽에서「演慶堂諺文册目錄」을 활자화해 보여주고 있다. 이 목록은 李王職에서 낙선재 문고를 조사해 1920년에 정리한 것이다. 목록 가운데 두 질씩 기입된 소설이 있다. 〈文章風流三代錄〉, 〈玩月會盟宴〉, 〈林氏三代錄〉, 〈楊門忠義錄〉, 〈劉氏三代錄〉, 〈靈異錄〉, 〈李(孝?)義貞忠禮行錄〉 등이다. 〈남계연담〉은『南溪演談』한 질만 소장된 것으로 나온다.

장서각본은 서울대본에 있는 문구를 누락한 곳이 있다. 다음은 馬后가 관대한 정치를 펼 것을 朱元璋에게 조언하는 장면이다.

휘 읍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샹이 임의 ᄌᆞ녀ᄅᆞᆯ 두어 계시니 가히 일후ᄅᆞᆯ 위ᄒᆞ야 젹뎍을 ᄒᆞ셤즉ᄒᆞ니 […] 국죄 댱구ᄒᆞ니이다 샹이 […] 문졍을 잡아다가 듕티ᄒᆞ고져 ᄒᆞ신대 마휘 극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문졍이 비록 교죵지죄 이시나 […] 그 다용이 츌인ᄒᆞ미라 ᄒᆞ믈며 골육지친이니 져근 죄ᄂᆞᆫ 맛당히 샤ᄒᆞᆯ 거시니이다[14] **〈서울대본〉**

휘 읍간ᄒᆞ야 ᄀᆞᆯ오샤ᄃᆡ 샹 샤ᄒᆞᆯ 거시니이다[15] **〈장서각본〉**

서울대본에서 馬后는 胡惟庸의 옥사를 관대히 처리한 것을 말한다. 또 朱元璋이 文正을 죽이려 하자 馬后가 말리는 삽화도 서울대본에는 나온다. 반면, 장서각본은 서울대본에 보이는 많은 문구를 누락한 채 단문만 제시한다. 장서각본은 서울대본 인용문 가운데 밑줄 친 '샹'과 '샤ᄒᆞᆯ 거시니이다'를 연달아 필사했는데, 저본의 줄 바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한 장 정도를 누락한 결과다.

그러나 서울대본이 장서각본의 저본은 아닌 듯하다. 서울대본도 장서각본에 있는 문구를 누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胡惟庸이 조정 대신을 무함하고 권력을 독단하는 장면이다.

우승샹 양광양이 양헌을 ◎불법지ᄉᆡ 만흐니 후일지해ᄅᆞᆯ 깁히 념녀ᄒᆞ샤 날로 ᄒᆞ여곰 훈신 등을 규찰ᄒᆞᄂᆞᆫ 소임을 맛기노라 ᄒᆞ신다 ᄒᆞ고[16] **〈서울대본〉**

우승샹 왕광양이 양헌을 극형ᄒᆞ믈 간ᄒᆞ엿더니 호유용이 ᄯᅩ 왕광양을 크게 아쳐ᄒᆞ여 […] 호유용이 ᄯᅩ […] 긔졔ᄅᆞᆯ 툐승ᄒᆞ야 형부상서ᄅᆞᆯ ᄒᆞ인대 긔졔 ᄉᆞᄉᆞ로이 가보고 티샤ᄒᆞᆫ대 유용왈 "황샹이 […] 츈취 놉프시고 태ᄌᆡ 뎌리 유약ᄒᆞᆫᄃᆡ 모든 공신이 심히 강ᄒᆞ야 ◎블법지ᄉᆞ 만흐니 후일지해ᄅᆞᆯ 깁히 념녀ᄒᆞ샤 날노 ᄒᆞ여곰 훈신 등을 규찰ᄒᆞᄂᆞᆫ 소임을 그ᄃᆡ긔 맛기노라 ᄒᆞ신다 ᄒᆞ고[17] **〈장서각본〉**

서울대본은 장서각본의 밑줄 친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 빠진 곳은

14) 『南溪謦談』 권3, 26-27쪽.
15) 위의 책, 50-51쪽.
16) 『南溪謦談』 권2, 8-9쪽.
17) 위의 책, 39-41쪽.

한 장 정도다. 앞서 장서각본이 서울대본의 문구를 누락한 정황과 비슷하다. 두 이본을 대조하면 전체 표현은 같을 정도로 비슷하면서 문구를 누락한 곳은 다르다. 문구가 거의 같으면서도 누락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본과 장서각본은 '同계열 저본'을 필사한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본은 동일 이본 계열로 묶인다.

김광순본은 서울대·장서각본과 달리 삽화를 축약한 곳이 있다. 劉基가 諸臣을 論相하는 장면은 서울대본에서 일곱 쪽에 걸치지만, 김광순본은 "만조 관과 삼경 육공의 논샹을 일〃히 ᄒᆞᄂᆞᆫ디라"라[18] 줄인다. 주원장이 제신의 장단을 논평하는 장면도 서울대본은 구체적인 반면 김광순본은 축약된다.

김광순본은 胡惟庸의 역모를 진압하는 부분을 필사하지 않았고 삽화를 축약한 곳이 있지만 이본으로서 가치는 높다. 김광순본을 통해 〈남계연담〉이 본래 한문소설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胡惟庸의 심복이 朱元璋을 궁 밖으로 유인할 계책을 말하는 대목의 일부다.

유여예천ᄒᆞ니 감여청ᄒᆞ고 청여쥬ᄒᆞ야 일음신명ᄒᆞ니 가히 비샹ᄒᆞᆫ 샹셰라 년이나 봉긔원힝 즉 필반변괴ᄒᆞ니 고로 비봉긔샹ᄒᆞ니 원폐하ᄂᆞᆫ 친님견디ᄒᆞ소셔[19]

〈김광순본〉

례쳔이 낫시되 ᄃᆞᆯ기가 ᄉᆞᆯ 깃고 청녈ᄒᆞ기 술 ᄀᆞᄐᆞ야 ᄒᆞᆫ 번 먹으매 정신이 ᄆᆞᆰ으니 이 정히 비샹ᄒᆞᆫ 샹셰라 다만 그ᄅᆞ식 다마 먼리 간즉 마시 변ᄒᆞᄂᆞᆫ 고로 그ᄅᆞ식 다마 올리디 못ᄒᆞ니 청컨ᄃᆡ 황샹은 잠간 법가ᄅᆞᆯ 굽펴 친림ᄒᆞ야 보쇼셔[20] **〈서울대본〉**

김광순본 인용문은 서울대본과 달리 漢文形에 가깝다. 서울대본을 참조하면 원문을 추정할 수 있다. 김광순본의 위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면 "有如醴泉 甘如淸 淸如酒 一飮神明 可非常事 然奉器遠行 則必反變乖 故非奉器上 願陛下親臨見之"일 것이다. 유독 전체 서술 가운데 위 한 문장만 한문형을 취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원본이 한문본이라면[21], 최초 번역자가 비교적 쉬운 문장이기에 토를 붙이는

18) 『南溪譫談』 상권, 414쪽.
19) 『南溪聯譚』 하권, 503쪽.
20) 『南溪譫談』 권2, 51쪽.
21) 〈남계연담〉은 역사서의 문구를 그대로 수용해 장면을 형상한다. 본래 한글 소설이면서 특정 역사서의 구문을 따오며 토를 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선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면에 보이는 한문형 문장, 실존인물 인명의 오기 등을 고려하면 김광순본은 표현과 삽화에 첨삭을 가한 저본을 충실히 옮긴 이본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이 다르고 삽화를 축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김광순본은 서울대본 · 장서각본과 계열이 다른 이본으로 상정한다.

〈남계연담〉은 명초 역사를 다뤄 실존인물이 대거 등장한다. 서울대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삽화가 풍부하면서도 실존인물의 인명을 오기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명초 역사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 곧 한문학 소양이 부족한 필사자가 의도적 가감 없이 충실히 필사한 결과다. 또 서울대본은 권1부터 권3까지 모두 갖춘 완질본이다. 세 이본을 대조한 교정본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대본을 선본으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서울대본에 근거해 〈남계연담〉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남계연담〉은 장회소설로 모두 5회다. 장회는 '고황뎨틱봉공신 욱니ᄌᆞ퇴귀쳥뎐' · '태조고텬졍셔쵹 영쳔츌긔평계문' · '뉴빅온심논텬샹 효유용역난복법' · '셔달병귀쳥룡산 태조칙닙황댱손' · '태조탁고건쳥뎐 연왕대긔정난병'의 순서다. 서사 배경은 홍무 3년에서 朱元璋 薨年인 建文 원년까지 중원이다. 등장인물은 태조 朱元璋과 劉基를 비롯한 공신들이다. 서사는 홍무 3년 공신을 봉작하며 시작해 劉基와 胡惟庸의 갈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중간에 夏國 정벌담이 나오나 주된 서사 관심은 충신과 간신의 대립을 위주로 명 조정의 정치판도에 쏠린다. 줄거리는 홍무 3년 공신 봉작을 첫머리로 夏國 정벌, 劉基의 퇴사, 胡惟庸의 獄, 藍玉의 獄, 朱元璋의 죽음, 燕王의 靖難으로 추려진다. 마지막 回名에서 '靖難之變'이 예상되나, 구체적 서술은 없다. 이야기는 太祖가 죽은 뒤 燕王이 연경으로 회군하며 끝난다.[22] 한편 燕王의 아들 高煦를 陳友諒이 환생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燕王 사후 벌어진 또 한 번의 골육상잔을 염두에 둔 포석일 것이다. 〈남계연담〉 작가가 홍무 3년부터 宣德帝까지 장구한 서사를 기획했음을 의미한다.

---

22) 양승민, 앞의 책, 453-454쪽에서 마지막 회명과 내용을 근거로 원본은 8책 남짓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칙목록』(규장각, 가람 古015.51-C346)에는 "남계연담 공ᄉᆞ"로 나온다. 4책 이본도 존재했다. 하지만 『칙목록』 소재 이본이 현전 〈남계연담〉의 이후 내용을 다뤘는지 확언할 수 없다. 〈남계연담〉을 4책으로 다시 성편한 이본일 가능성도 있다.

III. 〈남계연담〉의 특징

1. '본전'의 존재

〈남계연담〉은 홍무 3년 공신을 봉작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반면, 고전소설 대부분은 기자치성과 출생담을 필두로 서사를 시작한다. 고전소설의 일반적 양상에 비춰보면 〈남계연담〉의 시작 장면은 독특하다. 또 이야기를 시작하며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역시 특이점 가운데 하나다.

언급한 특이점을 토대로 〈남계연담〉이 어떤 소설에 연계된 소설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본문에서 '본전'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전의 존재 여부는 〈남계연담〉의 성격을 규정할 주요 문제다. 여기서는 본전의 실체를 究明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겠다.

다음은 〈남계연담〉에서 '본전'을 언급한 문구 및 참고 서적의 이름을 밝힌 대목이다.

① 셔달 샹우츈 니문튱 니션댱 욱니ᄌᆞ 숑념 양경 탕화 등이 각〃 **본뎐**의 잇시매 ᄲᅡ히노라.[23]

② 영튱이 계규로써 사로잡고 원슈 공ᄌᆞ 홍을 버히니 ᄉᆞ셜이 **명신뎐**에 잇ᄂᆞ니라.[24]

③ 대군이 도라올 제 잔도의 공을 사기고 오니 **명신뎐**의 잇시매 ᄲᅡ히노라.[25]

④ **뎐실록**에 ᄒᆞ야시되 공챵후 곽흥의 일홈이 ᄌᆞ흥이라 블너 써 분변ᄒᆞ게 ᄒᆞ니 흥에 부관 산뵈란 사ᄅᆞᆷ이 샹보기ᄅᆞᆯ 잘ᄒᆞ더니.[26]

⑤ 상쇠 이니 ᄯᅳ디 정딕ᄒᆞ고 말ᄉᆞᆷ이 ᄯᅩᄒᆞᆫ 졀당ᄒᆞ거ᄂᆞᆯ […] 태죄 보시고 뉴듕블하ᄒᆞ시니 상소ᄂᆞᆫ **젼실록**에 잇ᄂᆞ니라.[27]

인용문 ①은 김광순본에서 "[…] ᄉᆞ젹은 각〃 본뎐의 니시ᄆᆡ ᄲᅡ히노라"고[28] 나온다. 뜻은 같지만 김광순본은 "ᄉᆞ젹"을 넣어 ①보다 구체적이다.

---

23) 『南溪譚談』 권1, 31-32쪽.
24) 위의 책, 40쪽.
25) 위의 책, 71쪽.
26) 『南溪譚談』 권3, 42쪽.
27) 위의 책, 50쪽.

실제로 이들 인물이 문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남계연담〉은 연작 가운데 후편일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인물 가운데 몇몇은 비중 있게 등장한다. 욱니자는 '고황뎨틱봉공신 욱니ᄌᆞ퇴귀청뎐'을 토대로 추정하건대, 劉基를 지칭한다.[29] 劉基는 〈남계연담〉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처음 호명한 徐達 역시 劉基를 도와 胡惟庸에 맞서는 인물로 서사 전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셔달병귀청룡산 태조ᄎᆡᆨ닙황댱손' 回의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①에서 이들 인물을 뺀다고 했지만 정작 계속 등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소설 문면에서 언급한 '본전'은 연작의 전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 표현은 '본전에 중복을 피해 뺀다'는 형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전소설의 일반 양상을 참고하면 徐達과 劉基를 언급한 ①은 서술상 오류라기보다는 상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에서 언급한 인물은 모두 명 개국 공신이다. 사적이 각각 본전에 있다고 했으니, 본전은 이들 인물 사적을 모두 싣고 있는 문헌이다. 물론 '본전'을 언급한 서달 · 상우춘 등의 傳이 있는 역사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고한 역사책의 이름을 밝혀놓은 다른 인용문(②-⑤)을 토대로 보건대, 본전은 특정 역사서는 아닌 듯하다. 만약 역사서라면 ②-⑤처럼 책 이름을 명시했을 것이다. 보통명사로 칭하기 때문에 ①에서 언급한 본전은 이제까지 서사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헌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하면, '본전'은 『명신전』과 『전실록』 등의 역사책과 성격을 달리하며 〈남계연담〉 서사를 통해 짐작할 만한 문헌일 것이다. 또 언급한 인물은 모두 명 개국에 관여한 실존인물이다. 이들이 작중 인물로 등장한다면, 본전은 연의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각각 정황을 종합하면, ①에서 언급한 '본전'은 〈남계연담〉의 전편 성격을 지니고 언급한 인물이 함께 등장하며, 이제까지 서사를 통해 유추 가능한 연의소설일 것이다.

〈남계연담〉은 홍무 3년부터 서사를 시작한다. 따라서 〈남계연담〉의 본전은 홍무 3년 이전 이야기인 명 개국에 대해 다뤘을 것이다. 우리 소설 가운데 명 개국을 소재로 삼은 소설은 많다. 하지만 ①에서 언급한 인물이 모두 등장해 〈남계연담〉의 본전으로 볼 소설은 없는 듯하다.

---

28) 『南溪聯譚』 상권, 371쪽.

29) 劉基의 저작 가운데 『郁離子』가 있어 그를 '욱니자'라 칭한 듯하다.

번역소설까지 시야를 넓히면, 〈대명영렬뎐〉이[30] 눈에 띈다. 〈대명영렬뎐〉은 중국 〈皇明英烈傳〉(이하 〈皇明傳〉)을 번역한 소설이다.[31] 〈皇明傳〉은 〈皇明開運英武傳〉, 〈雲合奇踪〉과 더불어 '英烈傳'이라 지칭된다.[32] '英烈傳'은 朱元璋이 봉기군에 들어가 영웅을 사귀고 명을 세워 중원을 통치하는 과정을 그린 연의소설이다. '英烈傳'과 〈남계연담〉은 시대 배경과 인물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皇明傳〉은 英祖가 서문을 쓸 정도로 애독한 소설이다.[33] 英祖가 사신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남계연담〉과의 관련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

앞서 〈남계연담〉이 소설 후반부에 나올 만한 공신 봉작 장면으로부터 서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남계연담〉의 본전은 홍무 3년 공신 봉작 장면을 서사 뒷부분에 보이던지, 아니면 홍무 3년 남짓까지 다룰 것이다. 〈皇明傳〉 제54회에서 朱元璋은 대외 정벌을 일단락한다는 의미에서 공신을 봉작하고 철권을 내린다.

太祖高皇帝視朝畢 命大都督府兵部 錄上諸將功蹟 吏府定勳爵 戶部備什物 禮部定禮儀 翰林撰制誥 丁酉 太祖御奉天殿 皇太子親王侍 丞相李善長率文武百官列丹墀左右 太祖召諸將 諭之曰 汝等宜聽朕言 今日定封行賞 非出己私 皆做古先王之典 等之二年 以征討未暇 故至今日 […] 其次第皆朕所自定 至公無私 如左丞相李善長 雖無汗馬之勞 然事朕最久 供給軍糧未嘗缺乏[34] **〈皇明傳〉**

태죄 대열하샤 됴셔를 ᄂᆞ리와 공젹을 표쟝ᄒᆞ시고 도독부와 병부 니부를 명ᄒᆞ야 공훈 ᄎᆞ례를 긔록ᄒᆞ야 올리고 호부를 명ᄒᆞ야 샹ᄉᆞᄒᆞᆯ 금ᄇᆡᆨ을 ᄀᆞ초고 네부로 봉건ᄒᆞᄂᆞᆫ 졀조를 뎡ᄒᆞ고 궁부ᄂᆞᆫ 단셔텰권을 ᄆᆡᆼ글고 한림원으로 봉후고명을 지우라 ᄒᆞ시고 태죄 봉텬뎐의 어좌ᄒᆞ시니 태ᄌᆞ 친왕이 뫼셔 안고 승샹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단디 좌우에 버러 셧더니 샹이 제쟝ᄃᆞ려 뎐유ᄒᆞ실ᄉᆞ오샤ᄃᆡ 너희 등이 다 딤의 말을

30) 장서각. 청구기호: 귀 K4-6798 1-8. 마이크로필름 번호: MF35-206-207. 박재연이 교주했다. 박재연 校註, 『대명영렬뎐』(선문대 번역문헌연구소, 1996).

31) 박재연, 「낙선재본 『대명영렬뎐』 연구」, 『중국소설논총』 6집(1997), 53-54쪽.

32) '英烈傳'은 〈皇明英烈傳〉, 〈皇明英烈傳〉, 〈雲合奇踪〉 세 계열의 판본이 전한다. 〈皇明英烈傳〉과 〈皇明英烈傳〉은 편재만 다를 뿐 동일하다. 〈雲合奇踪〉은 줄거리는 같지만 새로운 삽화가 추가되었고 표현이 다른 곳이 있다. 판본 특징과 관계에 대해서는 朱恒夫, 「丁《英烈传》的作者, 演变与它的艺术性」, 『明清小說研究』(1995), 44-51쪽 참조. 朱恒夫의 연구는 박재연, 앞의 논문, 53-85쪽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33) 양승민, 앞의 책, 455쪽.

34) 『皇明英烈傳』, 475-476쪽. 해당 쪽은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영인 출판한 古本小說集成 第2集 135卷에 근거했다.

드ᄅᆞ라 오ᄂᆞᆯ날 공으로 뎡ᄒᆞ고 쟉상을 힝ᄒᆞ믄 ᄒᆞᆫ 사ᄅᆞᆷ의 ᄉᆞ식 아니라 녯 션왕의 법을 의방ᄒᆞᆷ이라 딤이 이 일을 ᄉᆡᆼ각ᄒᆞ연디 여러ᄒᆡ 되어시되 다만 졍벌이 긋치디 아니ᄒᆞ싱녕이 쉬이디 못ᄒᆞ매 이런 일을 결을치 못ᄒᆞ얏더니 오ᄂᆞᆯ날 쟉상 ᄎᆞ례ᄂᆞᆫ 다 딤의 손조 뎡ᄒᆞᆫ 배 아니니 지공무ᄉᆞᄒᆞᆫ디라 좌승샹 니션댱은 비록 한마의 공이 없ᄉᆞ나 딤을 션견디 ᄀᆞ쟝 오라고 군량을 쥰비ᄒᆞ야 핍졀ᄒᆞᆫ 때 업시하니[35]

〈남계연담〉

두 인용문을 비교하면 세부 표현은 다른 곳이 없지 않으나, 장면 전개는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 위 장면은 '英烈傳'의 다른 이본인 〈雲合奇踪〉에도 나온다. 그러나 〈雲合奇踪〉은 태조의 발언이 다소 다르다. 〈雲合奇踪〉에서 朱元璋은 옛 법을 따랐음을 밝히고 그동안 겨를이 없었음을 말한다.[36] 반면, 〈皇明傳〉은 먼저 "汝等宜聽朕言"이 나온 뒤 '行賞次第가 至公無私함'이 다시 강조된다. 〈남계연담〉도 마찬가지다. 물론 〈皇明傳〉이 아닌 여타 소설에서 위 장면을 수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皇明傳〉과 〈雲合奇踪〉 외에 예로 든 '홍무 3년 공신 봉작'이 나오는 중국소설은 없는 듯하다.[37] 따라서 〈皇明傳〉의 고유 장면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 〈남계연담〉에 실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정 삽화의 표현과 전개 양상이 비슷하고 다른 소설에 나오지 않기에 〈남계연담〉과 〈皇明傳〉의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다. 또 시대 배경 및 인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皇明傳〉 홍무 3년 이후 이야기를 탈각하고 〈남계연담〉을 연결해도 서사는 무리 없이 진행된다. 특히 〈남계연담〉의 서사 첫머리는 다른 소설과 연관성을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다. 만약 완전히 별도의 작품을 쓰고자 했다면, 창작 관습에 따라 劉基나 燕王 등 인물 탄생을 서사 첫머리로 삼았을 것이다. 요컨대, 〈남계연담〉은 〈皇明傳〉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홍무 3년 공신 봉작 장면을 서사 첫머리로 삼은 것이다. 시대 배경 및 인물 일부를 공유하고, 특정 장면을 통해 서사가 이어지도록 한 정황을 보면 '본전'은 〈皇明傳〉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계연담〉 작가는 '홍무 3년 공신 봉작'을 서사 첫머리로 삼아 〈皇明傳〉과 연결 고리를 만든 뒤, 인용문

35) 『南溪譫談』 권1, 1-2쪽.

36) 宁德偉 點校, 『英烈傳』 古本小說讀本叢刊 1(中華書局, 1996), 297쪽. 太祖說 今日定封行賞 非出一己之私 皆仿古來之典 向以征討未遑 故延至今日 如左丞相李善長……. 〈雲合奇踪〉은 '英烈傳' 이본이기에 활자 출간되며 제목을 '英烈傳'이라 했다.

37) 陳建(明, 1497-1567)이 쓴 明史書인 『皇明通紀』에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

①을 통해 본전의 존재를 알렸다고 볼 수 있다.[38]

〈남계연담〉과 〈皇明傳〉은 인물 및 배경이 일치해 같은 사건을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남계연담〉은 〈皇明傳〉의 사건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다. 또 사건 자체를 축소해 간단히 언급하는 문장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컨대, 〈皇明傳〉 제59-60회에 걸친 雲南 정벌은 〈남계연담〉에서 "이때에 안경후 구성과 영성후 설현과 서평후 목영은 남만과 서번을 티라가고"라[39] 짧게 줄인다. 〈남계연담〉은 〈皇明傳〉에서 다룬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지 않는 대신 관심을 다른 쪽에 돌린다. 〈남계연담〉 서사는 충신 대 권간신 사이 갈등에 집중된다. 劉基와 胡惟庸 사이 갈등은 〈皇明傳〉에 없지만 〈남계연담〉 제1·3·4회에 걸친 주요 갈등이다. 〈남계연담〉에서 劉基는 첫 회에 퇴사하지만 다시 상경한다. 이 과정에서 胡惟庸은 역심을 품고 劉基를 무함하며 죽이려 든다. 劉基와 胡惟庸의 갈등에 할애한 분량은 절반을 넘는다. 반면, 〈皇明傳〉을 비롯한 '英烈傳'은 군담 위주며 대신 사이 갈등은 관심 밖이다. 〈皇明傳〉에서 劉基는 제59회에 퇴사하고 더 나오지 않아, 胡惟庸과의 갈등 역시 없다. 같은 내용은 있지만 주요 관심이 판이하기 때문에 〈남계연담〉은 홍무 3년을 기점으로 의도적으로 〈皇明傳〉과 구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작품으로 볼 수 있다.[40]

역사에서 홍무 3년은 대외 정벌을 일단락한 시점이다. 홍무 3년에 이르면 夏國을 뺀 중원 전역이 명의 판도에 놓인다. 이때 시행한 공신 봉작은 국가가 반석에 놓였다는 선포인 셈이다. 따라서 홍무 3년은 대외 정벌이 아닌 국내 정치가 부각되는 기점이다. 〈남계연담〉은 입국 사연은 〈皇明傳〉에 맡기고 서사 관심을 군담이 아닌 국내 정치로 돌리기 위해 '홍무 3년 공신 봉작'을 서사 필두로 삼은 것이다.

〈皇明傳〉과 〈남계연담〉은 인물과 배경을 공유해 서사가 이어지면서

---

38) 英祖가 〈남계연담〉을 중국소설로 여긴 까닭이 여기에 있다. 英祖는 〈皇明英烈傳〉을 애독해 번역을 명하기도 했다(양승민, 앞의 책, 455쪽, 각주 30번 참조). 英祖는 〈남계연담〉을 읽고 애독했던 〈皇明英烈傳〉에 연계된 소설임을 안 것이다. 英祖는 중국소설에 연계된 소설이면서 형식 면에서 중국 연의소설과 일치해 〈남계연담〉을 중국소설로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

39) 『南溪譫談』 권1, 86쪽.

40) 김광순본의 표제는 "南溪聯譚"이다. 聯譚은 '잇댄 이야기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김광순본에 합철된 〈황명영렬긔〉는 다름 아니라 〈皇明傳〉을 적출 번역한 소설이다. 김광순본의 필사자는 〈남계연담〉을 〈皇明傳〉에 잇댄 이야기로 보고 '聯譚'이란 제명을 달았다고 볼 수 있다.

도 문제의식은 판이하다.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서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속편으로 볼 수 있다. 또 〈皇明傳〉과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외전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외전은 본전에서 다른 문제의식으로써 갈려 나온 작품이다. 이를 '파생작'이라[41] 한다. 파생작은 독자가 "책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용을 뒤집어보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결과물"이다.[42] 〈소현성록〉에서 손생을 따로 떼어 이야기를 만든 〈영이록〉, 〈취미삼선록〉 주인공을 환생시켜 이야기를 펼친 〈한조삼성기봉〉, 〈금화사몽유록〉을 늘리고 명 태조의 역할을 확장한 〈왕회전〉 등은 모두 '파생작'으로 분류된다. 〈皇明傳〉은 군담 위주인 반면, 〈남계연담〉은 명 조정을 위주로 서사를 진행한다. 본전에서 주목하지 않은 인물과 사건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 또 〈남계연담〉은 〈皇明傳〉 서사 이후 靖難의 시작을 다룬다. 판이한 문제의식으로써 다른 지향을 보이면서도 서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남계연담〉은 속편이면서도 외전의 성격 역시 지닌 소설이라 하겠다.

물론 본전 〈皇明傳〉은 중국소설이다. 하지만 우리 소설사에 〈남계연담〉처럼 중국소설을 본전으로 둔 소설이 존재한다. 바로 〈천수석〉이다. 다음은 〈천수석〉 연작 〈화산선계록〉에 보이는 〈殘唐五代演義〉(이하 〈殘唐演義〉)와 〈천수석〉에 대한 언급이다.

> 닙국ᄉᆞ연은 잔당연의에 긔록ᄉᆞ고 위공의 ᄉᆞ적은 본뎐 텬슈셕의 히비이 긔록ᄒᆞᆫ고로 ᄎᆞ뎐의ᄂᆞᆫ 위현이 ᄉᆞ적만 긔록ᄒᆞ고 다른 ᄉᆞ연은 번다 불긔ᄒᆞ다[43]

나라 세우는 이야기는 〈殘唐演義〉에 기록했고, 韋保衡의 사적은 〈천수석〉에 있으니 〈화산선계록〉에서 위현의 것만 쓴다고 한다. 〈천수석〉은 중국 연의소설 〈殘唐演義〉에서 사건과 인물 일부를 수용해 창작에 활용한 소설이다. 그런데 〈천수석〉의 韋保衡은 〈殘唐演義〉에 나오지 않는다. 〈천수석〉작가는 재상까지 지낸 실존인물 韋保衡이 〈殘唐演義〉에 등장하지 않는 데 불만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관심 둔 실존인물이 연의소설에서

41) 파생작은 임치균이 〈영이록〉을 분석하며 「〈영이록〉 연구」, 『古典文學硏究』 9집(1993), 327-351쪽에서 처음 제기했다.

42) 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 연구』(태학사, 2005), 45쪽.

43) 『화산선계록』 1(고려서림, 1986), 87-88쪽.

소외되자 〈殘唐演義〉의 등장인물 사이 관계를 재설정해 韋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44]

여겨볼 것은 〈화산선계록〉 작가가 〈殘唐演義〉에 韋保衡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殘唐演義〉와 〈천수석〉을 연계된 소설로 본 점이다. 배경이 일부 겹치면서도 韋保衡이 〈殘唐演義〉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천수석〉은 본전에 대해 속편이면서도 외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두 소설의 관계는 〈皇明傳〉과 〈남계연담〉에 그대로 적용된다. 〈남계연담〉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인물은 劉基다. 역사에서 劉基는 朱元璋 막하에서 큰 활약을 하지만 胡惟庸에게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불우한 말년을 보낸다. 〈남계연담〉은 불우했던 劉基의 말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皇明傳〉에서 劉基는 청운의 꿈을 이루고 퇴사한다. 이러한 퇴장은 실제 그의 삶과 어긋나며 미화된 측면이 다분하다. 그래서 〈皇明傳〉은 정치적이며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남계연담〉 작가는 본전에서 보이지 않은 劉基의 말년에 주목해 살벌했던 명초 정치 판도를 조망할 서사를 마련한 것이다.

〈남계연담〉 작가가 명초 정치를 조명하며 劉基에 주목한 까닭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劉基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劉基는 개국공신임에도 권간신의 견제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그의 삶은 명초 정치 판도를 보이기에 적합하다. 더불어 간신의 무함으로 인해 실각하고 독살당하는 삶은 우직한 충신이 지닌 비감을 보여줄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 소설에 보이는 劉基와 그 후손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소현성록〉에 합철된 〈자운산몽유록〉의 중심인물은 劉基다. 이 밖에 〈사씨남정기〉·〈유효공선행록〉의 남자 주인공은 모두 劉基의 후손이다. 〈소현성록〉·〈사씨남정기〉·〈유효공선행록〉 등은 초기 국문소설에 해당한다. 우리 고전소설은 劉基와 그 후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남계연담〉은 이러한 문학적 경향 속에 劉基를 통해 〈皇明傳〉과 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상 〈남계연담〉의 본전이 〈皇明傳〉임을 확인했다. 〈남계연담〉은 〈皇明傳〉에 대해 속편이면서 외전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남계연담〉은

44) 〈천수석〉은 위보형의 역사적 행적을 상당히 미화했다. 박순임, 「『泉水石』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81), 44쪽.

〈皇明傳〉과 변별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명초 정치 판도를 조망했다. 본전에서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소설 〈천수석〉, 〈영이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을 근원 삼아 여러 편의 후속 작품을 통해 '종적 확대'와 '횡적 확대'를 동시 다발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우리 장편소설의 특수성에 해당했다.[45] 〈남계연담〉은 문제의식과 창작 방식이 우리 소설사와 긴밀히 연계된 소설이라 하겠다.

2. 연의소설과 역사책 수용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다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소설이다. 그래서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다른 지향을 보인다. 이는 문면에 보이는 '역사책 수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여기서는 연의소설과 역사책을 함께 수용한 면모를 살피고 그 의미를 究明하겠다.

〈남계연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건은 '胡惟庸의 獄'이다. 실제 '胡惟庸의 獄'은 명초에 일어난 큰 사건으로 1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처형된다. 그런데 역모 경과는 『明史』와 〈남계연담〉이 다르다.[46] 〈남계연담〉에서 胡惟庸은 예천이 솟는다는 말로 朱元璋을 꾀어내 죽이려다 역모가 탄로 난다. 동일 사건에 대한 서술이 다르기 때문에 〈남계연담〉은 『明史』가 아닌 다른 책을 참조했을 것이다.

〈남계연담〉과 서술 양상이 유사한 역사책이 있다. 바로 陳建의 『皇明通紀』이다.[47] 『皇明通紀』는 문구부터 삽화까지 〈남계연담〉에 짙은 음영을 드리운다. 다음은 藍玉이 元 잔당을 정벌하는 대목이다.

---

45)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돌베개, 2005), 329쪽, 각주 13번 참조.

46) 列傳196, 『明史』 권308에 胡惟庸傳이 있다. 告變이 있어 胡惟庸을 죽인 뒤, 10년이 지나 사건 진상이 밝혀진다. 그래서 胡惟庸이 일으킨 역모 진위에 관해 논란이 많다. 趙翼(淸, 1727-1814)은 「胡藍之獄」, 『二十二史箚記』 권32에서 朱元璋이 사후 왕권 안정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옥사를 일으켰다고 보았다(至明祖則起事雖早 而天下大定則年已六十餘 懿文太子柔仁 懿文死 孫更孱弱 雖不得不爲身後之慮 是以兩獄大興 一網打盡 此可以推見其心迹也). 『廿二史箚記校證』(中華書局, 1984), 742쪽 참조. 胡惟庸 역모에 관한 논란은 기시모토 미오 · 미야지마 히로시 저, 김현영 · 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역사비평사, 2003), 35-36쪽 참조.

47) 『皇明通紀』는 일찍부터 조선 문인 사이에 읽혔다. 英祖 때 새로 편집해 『皇明通紀輯要』로 간행하기도 했다.

노왕을 ᄉᆞᆯ오더니 유흔남도의 니르러 군ᄉᆡ 갈ᄒᆞ야 물을 ᄎᆞᄌᆞ되 물이 업ᄉᆞ니 ᄀᆞ쟝 근심ᄒᆞ더니 ᄒᆞᆫ 쇼산 하에 다ᄃᆞ라 홀연 살 소ᄅᆡ 무수히 나거ᄂᆞᆯ ᄌᆞ세 보니 네 길노 ᄉᆡ암이 소사나 시내 ᄀᆞᆺᄐᆞ니 삼군이 환호ᄒᆞ더라. 샹이 이날 ᄭᅮᆷ을 ᄭᅮ시니 침뎐 셔븍의 흐르ᄂᆞᆫ ᄉᆡ암이 나발 미틀 드러가 뵈이더니 그 후 븍졍 쟝ᄉᆞ에 말을 드르니 몽ᄉᆞ와 부합ᄒᆞ더라.[48] **〈남계연담〉**

大軍之追虜也 進次游魂南道 無水 軍士渴甚 至一小山下 忽聞有聲如礮 使人視之 則四泉涌出 士馬就吟 得不困乏 餘流溢出如溪 衆咸歡呼曰 此朝廷之福 天之助也 先是 上嘗夢殿西北隅有小山 流泉直下 至於足所履而止 至是 泉涌泉適與夢符[49] **『皇明通紀』**

〈남계연담〉은 병사들의 발언을 환호하는 것으로 처리해 『皇明通紀』와 다소 다르다. 하지만 병사들의 환호를 제외하면, 전체 장면은 두 문헌이 그대로 일치한다. 기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문헌으로부터 수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처럼 『皇明通紀』의 삽화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할 곳이 『南溪譾談』 권1에 15여 곳, 권2에 6곳, 권3에 30여 곳에 이른다. 다음은 馬后가 여러 비빈에게 검소함을 권면하는 대목이다.

휘 셩이 공검ᄒᆞ샤 임의 귀ᄒᆞ시매 오히려 ᄉᆡᆫ 오ᄉᆞᆯ 닙으시며 니불과 요히 비록 ᄒᆞ야뎌도 네ᄅᆞᆯ ᄎᆞ마 ᄇᆞ라디 못ᄒᆞ노라 ᄒᆞ시고 ᄆᆡ양 의샹을 지으시매 나믄 실을 모든 왕비와 공쥬ᄅᆞᆯ 쥬신대 다 우서 ᄀᆞᆯ오ᄃᆡ […] 마휘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부귀예 ᄉᆡᆼ댱ᄒᆞ야 누에 치기와 뵈 ᄠᅳ기 쉽디 아니믈 알게 ᄒᆞᆯ 거시니 이거ᄉᆞᆯ 앗기미 아니라 텬디ᄅᆞᆯ 위ᄒᆞ야 ᄇᆡᆨ물을 쳔히 아니 너기ᄂᆞᆫ ᄠᅳ디라[50] **〈남계연담〉**

后性恭儉 旣貴 服澣濯之衣 衾裯雖弊不忍易 每製衣裳 餘帛緝爲巾褥 織工治絲有荒類棄遺者 亦緝而織之 以賜諸王妃 公主謂曰 生長富貴 當知蠶桑之不易 當爲天地惜物也[51] **『皇明通紀』**

인용문 가운데 공주들의 발언을 빼면, 『皇明通紀』와 『南溪譾談』의

48) 『南溪譾談』 권3, 42-43쪽.

49) 陳建, 『皇明通紀』 皇命啓運錄卷之七, 261쪽. 해당 쪽은 錢茂偉 點校, 『皇明通紀』 上·下(中華書局, 2006)에 의거한다. 이하 동일.

50) 『南溪譾談』 권3, 22쪽.

51) 陳建, 『皇明通紀』 皇命啓運錄卷之七, 235쪽.

표현은 일치한다. 『皇明通紀』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 문면에 싣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앞장에서 살핀 『전실록』과 『명신전』의 경우와 달리, 『皇明通紀』의 서명은 밝히지 않는다. 서사 전반에 걸쳐 참고했기 때문에 수용이 분명한 삽화임에도 서명을 일일이 밝히지 않은 것이다. 『황명통기』의 수용이 몇몇 곳에 국한됐다면 『명신전』과 『전실록』처럼 책이름을 명시했을 것이다. 물론 숱한 일치 삽화를 서로 다른 문헌에서 수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皇明通紀』로부터 수용한 것으로 추정할 곳은 50여 곳에 이른다. 그대로 따온 것으로 추정할 곳이 50여 개에 이른다면 『皇明通紀』 한 문헌을 중심으로 수용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삽화 수용을 넘어 서사 창작의 동기로 삼은 부분도 있다. 다음은 『皇明通紀』에 보이는 '30년 살운'에 대한 기록이다.

上手書問劉基以天相事 基條答上言 以爲雪霜之後 必有陽春 今國威已立 宜少濟以寬 上以其書付史館 或遺言 殺運三十年未除者 基曰 若使我當國 掃除俗弊 一二年後 寬政可復也 謹按 殺運直至永樂靖難後始除[52] **『皇明通紀』**

『皇明通紀』는 劉基가 관대한 정치를 펼 것을 조언했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또 30년 살운이 끝나지 않았다는 遺言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겨볼 곳은 謹按 이하, 역사가 陳建의 사평이다. 陳建 자신의 소견을 밝힌 대목으로 살운이 燕王의 靖難 후에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남계연담〉에서도 朱元璋과 劉基는 天相에 대해 논의한다. 대화 중 劉基는 살기를 감지하고 陳友諒의 원혼임을 지적한다. 또 陳友諒의 원혼으로 인해 "30년 살운을 ᄃᆡᄒᆞ야 ᄉᆡᆼ령을 만히 살해ᄒᆞ고 문무 됴신이 거의 다 이명"할[53] 것이라 예언한다. 朱元璋은 자손이나 척신을 죽여 살운을 방비하려 한다. 이에 劉基는 관대한 정치를 펼 것을 조언한다. 〈남계연담〉에서 살운을 일으킬 陳友諒의 원혼은 燕王의 아들 고귀(高煦의 오기)로 태어난다. 고귀가 바로 燕王에 이어 정변을 일으킨 朱高煦다. 역사에서 高煦는 형 洪熙帝가 즉위 1년 만에 죽고 조카(宣德帝)가 즉위하자 靖難을 일으킨다. 高煦의 靖難은 宣德帝에 의해 진압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대신과 황족이 죽임을 당한다. 〈남계연담〉 작가는 陳建의 사평을

52) 위의 책, 184쪽.
53) 『南溪譾談』 권3, 113쪽.

토대로 燕王의 靖難 이후 30년 살운이 끝나는 사건에 대해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남계연담〉에서 陳友諒을 高煦로 환생하도록 설정해 燕王의 靖難 이후 『皇明通紀』에서 언급한 '30년 살운'이 제거되는 사건을 高煦의 靖難으로써 준비했다고 하겠다.

홍무 3년 봉신 공작 장면을 살피며 논의했지만, 〈남계연담〉은 〈皇明傳〉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명통기』 역시 수용하고 있다. 다음은 夏國 정벌에서 傅友德이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다.

先時 友德進兵圍成都 戴壽何大亨率衆出城拒戰 以象載甲士 列於陣前 友德命前鋒指揮使李英以弓矢火器衝之 象中矢却走 自躁其陣 壽兵死者甚衆 友德亦中流矢[54] **『皇明通紀』**

傅友德急令神鎗弓箭火砲火銃 當先列陳 待衆象至 用銃砲弩箭神鎗 一齊攻擊 象見火器 卽時回奔本陣 友德令將 金鼓齊震 砲響連天 隨象後 一踴追擊 其象望本陣中以突而入 夏兵皆爲踏 死傷者過半 吾友仁回馬脫走 被郭英一鎗刺死 獲其象十二雙 戴壽何大亨領大兵入城 望閉不出 傅友德大獲全勝 收兵回宮[55] **〈皇明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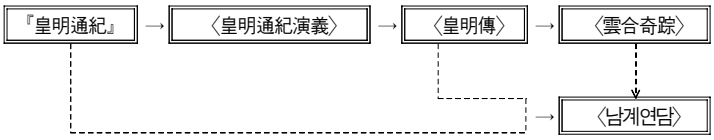
우덕이 반번 부동ᄒᆞ고 잇다가 젹병이 듕군을 범졉ᄒᆞ믈 기ᄃᆞ려 급히 젼거ᄅᆞᆯ 모라내니 믄득 모든 코키리 일시에 안ᄭᅩ 니디 아니ᄒᆞᄂᆞᆫ디라. 장ᄉᆡ 티되 움ᄌᆞᆨ이디 아니ᄒᆞ니 촉군이 ᄒᆞᆯ일이 업셔 황망히 ᄯᅳ히 ᄂᆞ리거ᄂᆞᆯ 거샹의셔 일시에 급ᄒᆞᆫ 살과 소뇌ᄅᆞᆯ 어즈러니 노흔대 쟝ᄉᆡ 일시에 함몰ᄒᆞᆫ디라 하대형 등이 승승ᄒᆞ야 븍 텨 젼군ᄒᆞ더니 화젼 마ᄌᆞᆫ 코키리ᄅᆞᆯ 만나 군듕이 대란ᄒᆞ거ᄂᆞᆯ 우덕이 급히 티니 촉병이 대패ᄒᆞ야 잔졸을 거두어 셩의 들고 나디 아니ᄒᆞ더라. 이 싸홈에 부우덕이 왼 풀히 흘으ᄂᆞᆫ 살흘 마자 ᄒᆞ마 위틱ᄒᆞᆯ 번ᄒᆞ고[56] **〈남계연담〉**

『皇明通紀』의 서술은 소략하다. 전술과 전투 경과를 보고하는 수준이다. 〈皇明傳〉의 장면은 『皇明通紀』에 비해 확대됐으나, 傅友德이 화살에 맞아 위태했던 일은 기술하지 않는다. 〈남계연담〉의 장면은 〈皇明傳〉보다 더 확대된다. 〈皇明傳〉은 火器를 사용한 전술만 나오지만, 〈남계연담〉은 위 인용문 앞에 수레를 사자 모양으로 꾸며 코끼리를 황겁하게 하는 전술도 나온다.[57] 또 〈皇明傳〉에서 누락한, 傅友德이 화살에 맞았다는

54) 陳建, 『皇明通紀』 皇命啓運錄卷之六, 180쪽.
55) 『皇明英烈傳』, 508쪽.
56) 『南溪譫談』 권1, 66-67쪽.

정보도 제공한다. 〈남계연담〉은 흥미를 담보할 군담을 서술하면서도 〈皇明傳〉에서 누락한 역사적 정보를 『皇明通紀』를 통해 보충한 것이다.[58]

박재연은 朱恒夫의 논의를 토대로 '英烈傳'의 개작 양상을 〈皇明通紀演義〉→〈皇明傳〉·〈英武傳〉→〈雲合奇踪〉 순서로 정리한다. 〈皇明通紀演義〉는 일실돼 실체를 알 수 없다. 〈三國志演義〉가 『三國志』를 토대로 했음을 참고하면, 〈皇明通紀演義〉 역시 『皇明通紀』를 토대로 했을 법하다. '英烈傳'은 『皇明通紀』를 연원으로 개작을 거듭하며 소설적 면모를 갖춘 것이다. 그런데 '英烈傳'의 한 계열이라 할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더불어 〈雲合奇踪〉의 흔적 역시 보인다.[5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계연담〉에 보이는 연의소설 〈皇明傳〉과 〈雲合奇踪〉 그리고 역사서 『皇明通紀』의 흔적은 다음의 의미를 지녔다. 첫째, 〈남계연담〉은 '英烈傳' 계열 소설을 참조했지만, 다른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그래서 앞서 살폈듯 '英烈傳'에서 빠트린 劉基의 말년을 조명하고 傅友德이 화살에 맞는 사건도 기술했다. 소설적 흥미와 더불어 역사 기록 역시 존중한 결과다. 둘째, 〈남계연담〉은 중국의 '英烈傳' 개작 노정에 역행했다. 중국에서 '英烈傳'은 〈皇明通紀演義〉로부터 삽화가 더해지고 윤색되어 "『雲合奇踪』에 이르면 소설 내용은 통속화 방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60] 그래서 〈雲合奇踪〉에 이르면 『皇明通紀』의 문구는 거의 찾아볼

57) 〈남계연담〉의 몇몇 장면은 〈皇明傳〉에 비해 더 확장돼 있다. 예컨대 〈皇明傳〉 '高皇帝奉賜功臣 榮陽侯奉命入蜀'에서 瞿塘關을 칠 때 계략은 발의 없이 진행 양상만 나온다. 장수들이 발화하는 장면은 없다. 반면, 〈남계연담〉은 장수가 구체적인 계책을 상의하는 장면이 있다.

58) 傅友德이 화살에 맞았다는 기록은 『明史』 권129, 列傳17(中華書局, 1974, 3802쪽)에도 실렸다. 『明史』는 전투 상황 속에서 언급한 반면, 『皇明通紀』와 〈남계연담〉은 전투를 종결한 뒤 언급한다. 『皇明通紀』와 〈남계연담〉의 서술 위치는 같다. 〈남계연담〉은 『明史』가 아닌 『皇明通紀』의 영향 아래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9) 〈雲合奇踪〉에서 朱元璋은 역대 창업주에게 제사를 지내다, 劉邦의 책사 張良을 책망한다. 朱元璋이 평소 劉基를 張良에 비유했기에 劉基는 적잖이 당황한다. 이 삽화는 〈皇明傳〉에 없지만 〈남계연담〉에 수용되어 劉基가 퇴사를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수 없다. 반면, 〈남계연담〉은 〈雲合奇踪〉을 수용하면서도 『皇明通紀』의 삽화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 싣고 있다. 〈남계연담〉은 중국 소설사와 변별되는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쓰인 소설인 것이다.

〈皇明傳〉·〈雲合奇踪〉과 『皇明通紀』를 함께 수용한 방식은 연의소설과 역사서의 짜깁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짜깁기 방식은 우리 고전소설 〈옥환기봉〉에서 찾을 수 있다. 〈옥환기봉〉은 『後漢書』와 〈東漢演義〉를 함께 수용해[61] 서사를 구축한 우리 고전소설이다. 〈옥환기봉〉은 〈東漢演義〉와 달리 후비 사이 쟁총을 다루지만 몇몇 장면 형상은 〈東漢演義〉와 『後漢書』를 그대로 번역해 짜집기했다. 역사서와 같은 시대를 다룬 연의소설을 짜깁기해 장면을 형상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소설 〈옥환기봉〉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62]

〈남계연담〉 역시 앞서 살폈듯, 『皇明通紀』와 〈皇明傳〉·〈雲合奇踪〉을 함께 수용한다. 같은 시대를 다룬 연의소설과 역사책을 짜깁기한다는 면에서 〈남계연담〉과 〈옥환기봉〉은 밑감만 다를 뿐 창작 방식은 일치한다. 따라서 〈남계연담〉은 중국과 변별되는 우리 고전소설의 독특한 창작 방식을 충실히 구현한 소설이라 하겠다.

〈남계연담〉이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18세기는 청이 융성하던 시기다. 이 시기 조선 지식인은 청을 배우려 했지만, 자국을 明이 지녔던 "정치적 정통성과 중화문화를 온전히 계승한 문화국가"로[63] 믿기도 했다. 그래서 이적 왕조가 펴낸 중국 역사서를 새로 편찬하는 작업은 유일한 중화국가인 조선의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했다.[64] 이 맥락에서 끊임없이 明史를 탐구하며 史書를 편찬했다. 〈남계연담〉이 군담 위주인 〈皇明傳〉에 만족하지 못하고 역사책을 지표로 삼은 연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남계연담〉 작가는 흥미 위주의 군담보다 '알아야 할 역사'를 선별해 역사책을 지표 삼아 소설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역사책을 참조했지만 번역에 그치지 않았다. 연의소설과 사료

---

60) 박재연, 앞의 논문, 60쪽.

61) 임치균, 앞의 논문(2002), 158쪽.

62) 역사서를 수용한 소설로 〈삼강명행록〉을 들 수 있다. 〈삼강명행록〉은 특정 장면에서 谷應泰, 『明史紀事本末』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 수용했다.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149-152쪽 참조.

63)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새문사, 2009), 53쪽.

64) 위의 책, 60쪽.

를 짜깁기해 흥미와 역사적 의미를 모두 노렸다. 소설의 효용을 여겨보고[65] 역사책의 한계도 극복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66] 이러한 지향은 중국의 '英烈傳' 개작 노정과는 어긋났다. 하지만 역사책과 연의소설을 짜깁기하는 것은 우리 소설사에서 쓰이는 창작 기법이었다. 〈남계연담〉은 우리 소설의 독특한 창작 기법을 토대로 쓰인 소설이라 하겠다.

3. 삽입 한시의 양상

3책 분량 〈남계연담〉에 모두 16수의 한시가 나온다. 한글소설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또 한글로만 쓴 원문에 번역을 함께 싣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문면에 보이는 16수의 한시 가운데 창작시는 11수이다.[67] 수용한 시 가운데 朱元璋과 윤문태자 그리고 태손[建文帝]이 모여 시를 짓고, 朱元璋이 이들의 시구를 불길하게 여기는 대목은 한시와 더불어 앞서 살핀 바 있는 『皇明通紀』로부터 수용했다.[68] 등장인물의 사적과 관련해 나온 이러한 한시는 작중 해당 인물이 실존인물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존인물이 실제로 읊었을 한시를 문면에 그대로 제시해 그들의 사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수용한 한시는 5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11수는 모두 출전을 확인할 수 없다. 출전 미상인 11수는 〈남계연담〉 작가가 창작한 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창작시가 실존인물의 입을 통해 문면에 실리는 점이다. 실존인물이 시를 쓰며 그들의 문집에 실리지 않은 시를 읊는 상황인 것이다.

劉基가 퇴사할 때 여러 공신이 써준 전별시 7수를 빼면 한시는 다양한 상황에 고루 나온다. 장수가 변방에서 우연히 읊는가 하면, 벗을 만나 서로 차운하기도 한다. 모두 살피기에 문면의 제약이 있으니 여기서는 劉基가 벗 두청을 만날 때 읊은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65) 西浦 金萬重이 말한 소설의 감화력을 이해하고 역사책의 한계도 극복한 것이다. 이 견해는 임치균이 앞의 논문(2001), 158쪽에서 〈옥환기봉〉을 분석하며 제기했다. 〈옥환기봉〉과 〈남계연담〉은 역사책 및 연의소설을 수용한 측면이 같다. 그래서 〈남계연담〉에도 적용할 수 있다.

66) 소설로써 역사철학을 전개한다는 견해는 조동일이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지식산업사, 1999), 496쪽에서 〈천수석〉 분석을 통해 피력했다.

67) 《中國基本古籍庫》를 검색해 얻은 결과로 창작시와 수용시의 비율은 바뀔 수 있다.

68) 陳建, 앞의 책, 307쪽.

인ᄒᆞ야 와분에 빅쥬를 기우리며 글을 을푸니 시왈
십지풍딘뎨쟈ᄉᆞ(十載風塵帝者師) 십년 풍딘에 님군 스승이 되엿더니
쳥산금일갈건귀(靑山今日葛巾歸) 쳥산 오ᄂᆞᆯ날 갈건으로 도라왓도다
환댱유악경뉸슈(換張帷幄徑輪手) 믄득 ᄌᆞ방의 유악 경뉸ᄒᆞ든 슈단을 가져
깅파반계구죠ᄉᆞ(更把磻溪舊釣絲) 다시 녀샹의 반계 녯 낙시 쥴을 잡으리라

쳥이 화답ᄒᆞ니 시왈
북창고와몽운ᄉᆞ(北窗高臥夢雲師) 북창에 놉히 누어 복희시를 쑴쑤니
일뎐숑음만죠귀(日轉松陰晩鳥歸) ᄒᆡ 쇨 그림ᄌᆞ랄 구을리고 느즌 새 도라오ᄂᆞᆫ도다
홀우고인기셕탑(忽遇故人開石榻) 홀연 고인을 만나 셕탑을 여니
산뇨여유치여ᄉᆞ(山醪如乳菜如絲) 뫼 탁쥬ᄂᆞᆫ 졋ᄀᆞᆺ고 ᄂᆞ믈은 실ᄀᆞᆺ도다[69]

劉基가 7언시를 짓자 두청이 차운한다. 劉基는 자신의 삶을 빗대 읊는다. 朱元璋의 軍師로 활약했음을 말한 뒤, 呂尙이 낚시하던 고사를 들어 은거할 뜻을 비친다. 呂尙은 낚시를 하다 문왕을 만났으니, 그 낚싯줄을 다시 잡는다는 말은 임금이 씀에 따라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퇴사했지만 다시 상경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남계연담〉에서 劉基는 퇴사와 상경을 반복하며 朱元璋을 보필한다. 시 구절이 지닌 뜻은 그의 삶과 일치한다. 그래서 위 시 가운데 劉基의 것은 그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폈지만, 〈남계연담〉은 이야기를 축조하며 상당 부분 역사책의 기록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존인물인 劉基가 읊은 시는 그의 문집이나 역사책에 있어야 하지만, 위 시는 작가가 창작한 시로 『誠意伯文集』 및 여타 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 작가가 서사에 맞게 시를 창작해 삽입한 것이다. 작가가 창작시를 문면에 삽입한 이유는 서사 속 상황 때문일 것이다. 사대부의 일상에서 벗을 만나거나 전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한시다. 실제 사대부의 일상과 일치하도록 장면을 형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시가 지닌 서정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劉基가 퇴사하고 고향에 내려갈 때, 친분이 있던 공신은 전별시를 시축에 적어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실존인물이지만, 그들이 쓴 시는 모두 출전을 알 수 없다. 〈남계연담〉 작가가 전별 장면을 구성하며 한시를

69) 『남계연담』 권1, 19-20쪽.

집중적으로 창작해 삽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시가 연속해 제시되기 때문에 장면은 크게 확장되어 있다.

한시가 아닌 서술로도 석별의 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별 장소에 모인 개개인이 느낄 비슷한 소회를 거듭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별을 아쉬워하고 劉基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술은 제한된 표현 속에서 의미가 중첩적으로 제시되어 장면이 지루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시는 작중인물들이 느끼는 각각 감정을 개성 있게 표출할 수 있다. 요컨대, 〈남계연담〉 작가는 한시를 통해 작중인물의 심리를 표출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상투적 인사를 대신해 작중 상황 및 인물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형상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劉基는 명초 유명 문호이다. 그의 문집에서 상황에 맞는 시를 찾아 삽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 유명 시구를 차용했다. 마지막 연에서 白居易의 〈晩池泛舟遇景成詠贈呂處士〉[70] 가운데 '同把磻溪舊釣竿'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변개를 가했다. 특히 기존 시가 지녔던 詩想과 상관없이 소설의 서사 맥락에 따라 시구가 변개됐다.

이러한 수용 방식은 중국 연의소설에서 찾기 힘들다. 중국 연의소설의 경우 역사적 인물이 읊은 시는 문집이 아니라도 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 연의소설에서 실존인물인 작중 등장인물의 한시는 실제로 그가 쓴 시를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수용 방식은 우리 고전소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 고전소설에 나오는 삽입 한시는 기존 名詩의 구절을 조합하는 경우가 있다.[71] 〈남계연담〉의 경우 앞서 살핀 한시를 포함하여 16수 가운데 11수가 창작시면서 지은이는 실존인물로 설정된다. 또 그들이 읊은 시구는 다른 유명 문인의 구절을 따온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 연의소설과 변별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삽입 한시의 양상에 대해 살폈다. 〈남계연담〉에 나오는 16수 가운데 11수의 한시가 창작시였다. 〈남계연담〉의 서사에 삽입된 한시는 작중 상황 및 인물 감정을 구체적으로 감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

70) 白居易, 〈晩池泛舟遇景成詠贈呂處士〉 岸淩橋平池面寬, 飄然輕棹泛澄瀾//風宜扇引開懷入, 樹愛舟行仰臥看//別境客稀知不易, 能詩人少詠應難//唯憐呂叟時相伴, 同把磻溪舊釣竿.

71) 서정민, 앞의 논문, 68-70쪽 참조.

이러한 삽입 한시는 중국 연의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남계연담〉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국 연의소설의 삽입 한시는 출전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남계연담〉은 실존인물이면서도 기존 시의 조합 및 변개로써 쓰인 시를 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IV. 맺음말

〈남계연담〉은 『承政院日記』 소재 단편 기록으로 인해 중국소설로 여겨졌다.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頤齋亂藁』를 통해 관련 기록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작품을 분석해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적을 다시 검토했다.

〈남계연담〉은 중국 연의소설 〈皇明傳〉을 본전으로 둔 소설이었다. 〈皇明傳〉은 군담 위주로 서사를 진행했다. 반면, 〈남계연담〉은 〈皇明傳〉에서 주목하지 못한 명 조정의 정치 판도를 조명했다. 〈남계연담〉은 〈皇明傳〉이 보이지 못한 명초 정치적 판도를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劉基를 중심인물로 택해, 흥미 본위인 〈皇明傳〉에서 갈려 나왔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 소설 〈천수석〉에서 확인했다.

〈皇明傳〉에서 劉基는 청운의 꿈을 이루고 퇴사해 그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보이지 못했다. 〈남계연담〉은 명초 정치 판도를 보이기 위해 정쟁에 희생된 劉基를 선택했다. 이 역시 劉基와 그 후손에 주목한 우리 소설사적 흐름과 일치했다.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다른 지향을 보이기 위해 역사서 『皇明通紀』를 수용했다. 중국 '英烈傳'은 『皇明通紀』에서 소설적 구색을 갖추며 개작됐다. 반면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雲合奇踪〉을 수용하면서 『皇明通紀』 역시 수용했다. 중국 쪽의 '英烈傳' 개작에 역행하는 양상이었다. 연의소설과 역사서의 짜깁기는 우리 소설사에서 찾을 수 있는 창작 기법이었다. 동일한 방식을 우리 소설 〈옥환기봉〉에서 확인했다.

〈남계연담〉에 다양한 창작 한시가 나왔다. 〈남계연담〉의 창작 한시는 기존 한시의 시구를 조합 및 변개했다. 이러한 창작 한시는 실존 인물의 입을 통해 문면에 제시됐다. 〈남계연담〉의 한시 제시 방식은 중국 연의소설에서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 소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한시를

제시하는 소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 결과 〈남계연담〉은 우리 소설사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 방식으로 쓰인 우리 소설이었다. 소재의 독창성은 다소 부족하나 중국소설에 대한 우리 소설의 대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남계연담〉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후속 논고를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古代小說』. W. E. Skillend, 문연각, 1985.

『南溪聯譚』. 김광순 편,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42권, 박이정, 1998.

『南溪譫談』.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일석 819.5 N152yp. v. 1-3.

『南溪演談』. 장서각, 귀 K4-6788, MF35-20.

『대명영렬뎐』. 장서각, 귀 K4-6798 1-8, MF35-206-207.

『陶淵明集』. 陶淵明 著, 袁行霈 撰, 『陶淵明集箋注』, 中華書局, 2003.

『明史』. 張廷玉 等 撰, 中華書局, 1974.

『明史紀事本末』. 谷應泰 著, 中華書局, 1977.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雲合奇踪』. 宁德偉 點校, 『英烈傳』 古本小說讀本叢刊 1, 中華書局, 1996.

『二十二史箚記』. 趙翼 著, 王樹民 校證, 『廿二史箚記校證』, 中華書局, 1984.

『頤齋亂藁』. 黃胤錫 著,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화산선계록』. 고려서림, 1986.

『皇明開運英武傳』. 古本小說集成 第4集 391卷, 上海古籍出版社, 1991.

『皇明英烈傳』. 古本小說集成 第2集 135卷, 上海古籍出版社, 1991.

『皇明通紀』. 陳建 著, 錢茂偉 點校, 『皇明通紀』 上·下, 中華書局, 2006.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53-60쪽.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저, 김현영·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35-36쪽.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7, 28쪽.

박순임, 「『泉水石』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1, 44쪽.

박재연, 『대명영렬뎐』. 선문대 번역문헌연구소, 1996, 267쪽.

_____, 「낙선재본 『대명영렬뎐』 연구」. 『중국소설논총』 6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7, 53-54쪽.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0쪽.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古典文學硏究』 2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6, 259-289쪽.

_____, 『고전소설 문헌학의 실제와 전망』. 아세아문화사, 2008, 429-458쪽.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8쪽.

임치균, 「〈영이록〉 연구」. 『古典文學硏究』 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327-351쪽.

_____,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90-318쪽.
_____,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수용 일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韓國古典硏究』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58쪽.
_____, 「〈한조삼성기봉〉 연구」. 『장서각 낙선재본 고전소설 연구』, 태학사, 2005, 45쪽.
_____, 「〈태원지〉 연구」. 『古典文學硏究』 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355-384쪽.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東方學志』 5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41-151쪽.
전인초, 「劉基行狀과 『南溪演談』·『南溪聯譚』」. 『東方學志』 14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21-340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329쪽.
정병설, 「24. 남계연담」. 『藏書閣古小說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67쪽.

朱恒夫, 「丁 〈英烈传〉的作者, 演变与它的艺术性」. 『明清小說硏究』, 1995, 44-51쪽.

국 문 요 약

〈남계연담〉은 『승정원일기』 소재 단편 기록으로 인해, 이제껏 중국소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논의 결과 〈남계연담〉의 특징은 우리 소설사와 맥이 닿아 있었다. 이 글은 〈남계연담〉의 특징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남계연담〉은 중국 연의소설 〈皇明傳〉을 본전으로 둔 소설이었다. 〈皇明傳〉은 군담 위주로 서사를 진행한 반면, 〈남계연담〉은 명조정의 정치 판도를 조명했다. 〈남계연담〉은 본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겠다. 〈남계연담〉은 〈皇明傳〉이 보이지 못한 명초 정치적 판도를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劉基를 중심인물로 택했다. 〈皇明傳〉과 달리 역사에서 劉基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됐다. 劉基와 그 후손에 주목한 우리 소설사적 흐름과 일치했다. 둘째, 〈남계연담〉은 〈皇明傳〉과 다른 지향을 보이기 위해 역사서 『皇明通紀』를 수용했다. 연의소설과 역사책을 함께 수용한 것이다. 연의소설과 역사서를 짜깁기한 장면 형상 방식은 우리 소설 〈옥환기봉〉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남계연담〉에 다양한 창작 한시가 나왔다. 창작 한시는 기존 한시의 시구를 조합 및 변개한 것이었다. 창작 한시는 실존인물의 입을 통해 문면에 제시됐다. 이러한 한시 제시 방식은 중국 연의소설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우리 소설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투고일 2011. 6. 20.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10. 28.
주제어(keyword) 남계연담(Namgyeyandam), 영조(Youngjo), 영렬전(Yingliezhuan), 옥환기봉(Okhwankibong), 운합기종(Yungejizong), 유기(Liuji), 주원장(Zhuyuanzhang), 호유용(Huwei-young), 황명영렬전(Huangmingyingliezhuan), 황명통기(Huangmingtongji)